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22년 5월 10일(화) 배포	매 수	총 5매

- 이 자료의 저작권은 (주)컨슈머인사이트에 있으며, 보도(언론사) 이외의 활용은 당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산(山) 여행추천, 경북 청송이 '산·계곡' '등산' 2관왕

컨슈머인사이트, 여행자·현지인 추천 산림관광자원 분석

- '산·계곡' '등산', 전국 1위 경북 청송, 2위 전남 구례
- '캠핑·야영'은 경기도 연천 1위, 포천 2위
- 태백산맥 내륙과 전북-전남-경남 지리산 권역이 핵심
- 바다 멀고, 문화 유적 적고, 한적한 고산지역이 공통점

경북 청송과 전남 구례가 산림여행자원 중 '산·계곡', '등산' 2개 부문에서 각각 1, 2위로 여행자와 현지인의 추천을 많이 받았다. '캠핑·야영' 부문에서는 수도권의 경기 연천과 포천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충북 괴산, 경남 산청·함양 3곳은 3개 부문 모두에서 상위 20위권에 올라 산림여행자원 전반에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1 여행자·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에서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 포함) 6만9612명에게 해당 지역에서 기대하거나 추천할 만한 지역 관광자원을 묻고, 59개 부문 관광자원 중 '산'과 연관된 3개 부문(△산·계곡 △등산 △캠핑·야영)에 대한 추천 결과를 집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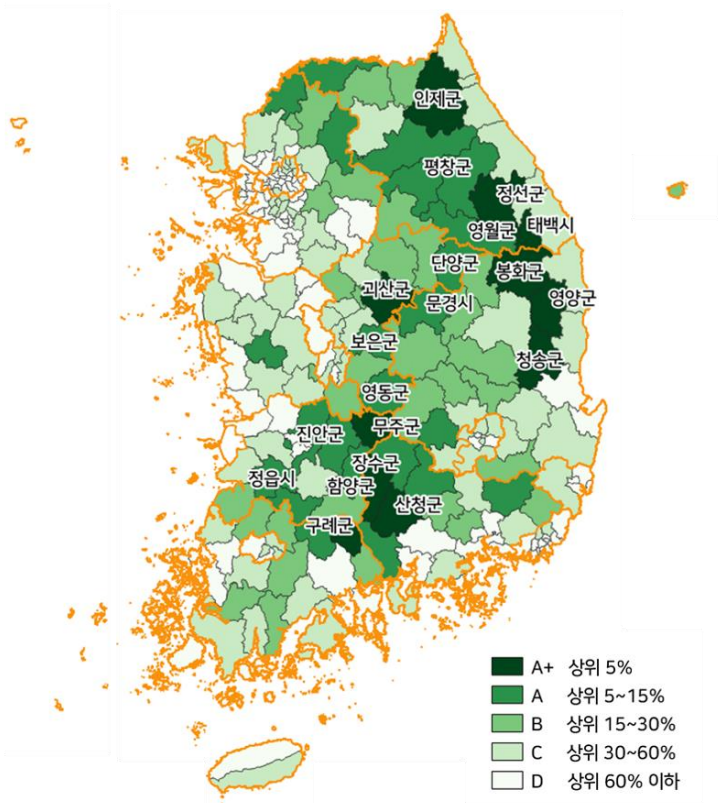
■ 산림에 특화된 내륙 산악지역 주류

산·계곡 부문에서 추천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시군구)는 △경북 청송(86%)이었으며 그 다음은 △전남 구례(81%)였다. △경북 영양 △충북 괴산 △경남 산청이 나란히 77%로 5위권에 들었다. 대체로 태백산맥(설악산·태백산)과 소백산맥(가야산·지리산)을 중심으로 분포한 내륙 산악지역이다[그림].

[그림] '산/계곡' 여행자원 추천율 (기초지자체)

[BASE : 현지인과 여행자 총 69,612명]

순위	지역	추천율(%)	순위변동	산림 종합 추천 수준
1	경북 청송군	86	▲3	★★
2	전남 구례군	81	▲5	★★
3	경북 영양군	77	▽1	★★
4	충북 괴산군	77	▲2	★★☆
5	경남 산청군	77	-	★★★★
6	강원 인제군	76	▽5	★★☆
7	경남 함양군	76	▽4	★★☆
8	경북 봉화군	75	▲8	★★
9	강원 정선군	75	▲5	★
10	전북 무주군	75	▲11	★
11	강원 태백시	75	▲7	★★
12	경북 문경시	73	▽3	☆☆
13	전북 정읍시	72	▲2	☆☆
14	충북 보은군	72	▽3	★★☆
15	충북 영동군	72	▽7	☆
16	강원 평창군	72	▲18	☆
17	전북 진안군	71	▽5	★★☆
18	충북 단양군	71	▲5	☆
19	강원 영월군	70	▲5	☆
20	전북 장수군	70	▽3	★★☆



주1) 순위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순위 변동은 21년-19년 순위임

주2) 산림 종합 추천수준에서 ★은 3개 부문(산·계곡, 등산, 캠핑·야영) 중 상위 5% 이내에, ☆은 상위 5~15% 이내에 포함된 개수를 의미

Q (현지인) '그 지역(들)' 여행객에게 소개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Q (여행자) 여행 전에 '그 지역에 대해 기대하신 여행자원은 무엇이었습니까?'

■ 산·계곡 추천 여행지, 등산에서도 상위권 올라

등산은 △경북 청송(47%) △전남 구례(43%)가 최상위권에 올랐고 그 뒤로는 △강원 태백 △경남 함양(각각 42%) △전북 장수(40%) 순이었다. 상위 20위 내 지자체 중 청송과 구례를 포함해 절반이 넘는 11개 지역*은 '산·계곡' 부문에서도 20위 안에 들어 2개 부문의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첨부 1].

*청송·봉화·문경(이상 경북), 산청·함양(이상 경남), 괴산·보은(이상 충북), 인제·태백(이상 강원), 장수(전북), 구례(전남)

■ 캠핑·야영, 경기·경남·경북 등 대도시권 강세

캠핑·야영 부문에서는 상위권 지자체의 면면이 좀 달랐다. △경기 연천(38%)이 2019년에 이어 선두를 지켰고 △경기 포천(31%) △경북 성주(30%) △충북 괴산(29%) △경남 합천(28%)이 5위권에 들었다. 경기, 경남, 경북에서 각각 5개 시군이 상위 20위권에 올랐는데, 수도권 등 대도시 인접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첨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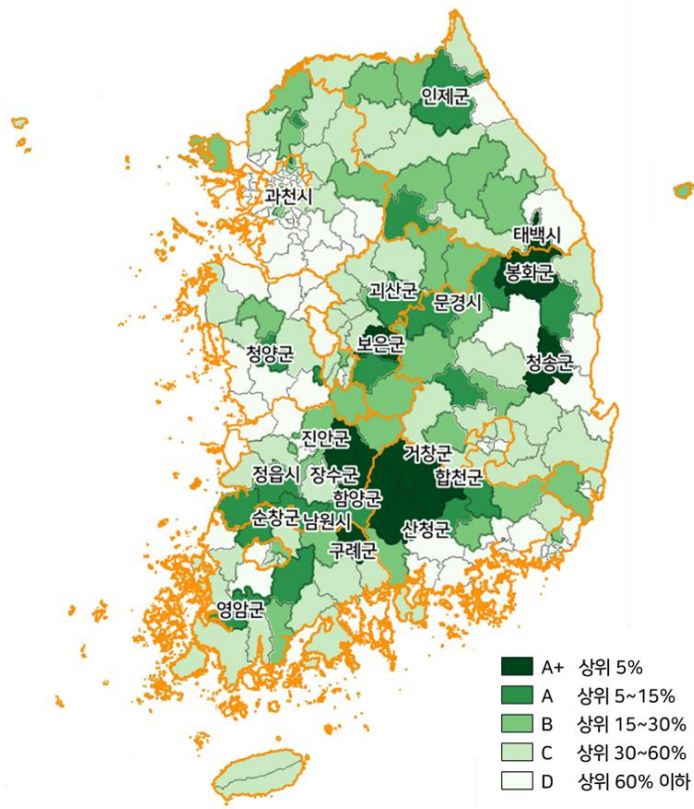
산림 자원 3개 부문에서 상위권에 오른 지역은 대부분 특별히 내세울 자원이 빈약한 곳이다. 바다와 먼 내륙 지역이며, 유명한 문화유적이 적어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 '산(山)' 이외에 추천할 다른 소재가 마땅치 않은 곳이다.

전 국민 대표 레저 활동의 하나인 등산, 점점 커지고 있는 캠핑, 한적한 곳에서의 힐링 등 코로나 이후의 여행 트렌드가 산림자원을 더 찾게 만들고 있다. 산림자원은 계절성과 활동 측면에서 해양 자원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도입하면 유력한 자원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첨부1] '등산' 여행자원 추천율 (기초지자체)

[BASE : 현지인과 여행자 총 69,612명]

순위	지역	추천율(%)	순위변동	산림 종합 추천 수준
1	경북 청송군	47	-	★★
2	전남 구례군	43	▲1	★★
3	강원 태백시	42	▲9	★★
4	경남 함양군	42	▲21	★★☆
5	전북 장수군	40	▲16	★☆☆
6	전북 진안군	40	▲2	★☆☆
7	충북 보은군	40	▽5	★☆☆
8	경남 산청군	40	▲5	★★★★
9	경북 봉화군	39	▲2	★★
10	경남 거창군	38	▲23	★
11	경남 합천군	38	▲36	★★
12	경북 문경시	37	▲8	☆☆
13	강원 인제군	36	▲3	★☆☆
14	전북 정읍시	36	▽10	☆☆
15	충남 청양군	36	▲8	☆☆
16	충북 괴산군	35	▽9	★★☆
17	경기 과천시	35	▽8	☆
18	전북 남원시	34	▽1	☆
19	전남 영암군	33	▲5	☆
20	전북 순창군	33	▽15	☆



주1) 순위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순위 변동은 21년-19년 순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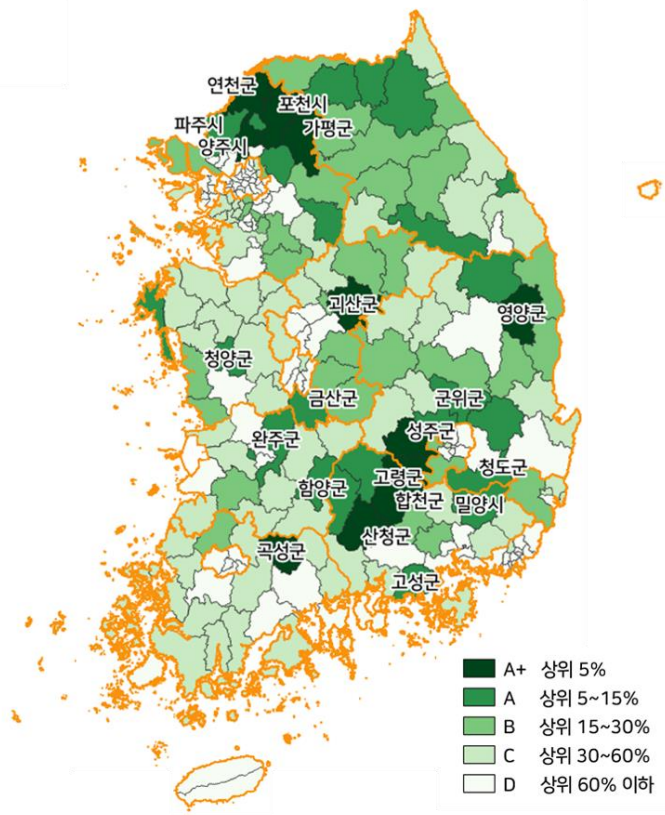
주2) 산림 종합 추천수준에서 ★은 3개 부문(산계곡, 등산, 캠핑) 중 상위 5% 이내에, ☆은 상위 5~15% 이내에 포함된 개수를 의미

Q. (현지인) '그 지역을(들) 여행객에게 소개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Q. (여행자) 여행 전에 '그 지역에 대해 기대하신 여행자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첨부2] '캠핑/야영' 여행자원 추천율 (기초지자체)

[BASE : 현지인과 여행자 총 69,612명]

순위	지역	추천율(%)	순위변동	산림 종합 추천 수준
1	경기 연천군	38	-	★
2	경기 포천시	31	▲6	★
3	경북 성주군	30	▲65	★
4	충북 괴산군	29	▲16	★★☆
5	경남 합천군	28	▲49	★★
6	경북 영양군	28	▲15	★★
7	경북 고령군	27	▲9	★
8	경남 산청군	27	▲31	★★★
9	경기 가평군	27	▽3	★
10	전남 곡성군	27	▲15	★
11	경기 양주시	26	▽8	★
12	경북 청도군	26	▽10	☆
13	경남 고성군	26	▲1	☆
14	경기 파주시	26	▽4	☆
15	충남 금산군	26	▲25	☆
16	경남 함양군	25	▲22	★★☆
17	경남 밀양시	24	▲29	☆
18	전북 완주군	24	▲6	☆
19	경북 군위군	24	▲85	☆
20	충남 청양군	23	▲7	☆☆



주1) 순위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순위 변동은 21년-19년 순위임

주2) 산림 종합 추천수준에서 ★은 3개 부문(산·계곡, 등산, 캠핑·야영) 중 상위 5% 이내에, ☆은 상위 5~15% 이내에 포함된 개수를 의미

Q. (현지인) '그 지역(들)' 여행객에게 소개하신다면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Q. (여행자) 여행 전에 '그 지역에 대해 기대하신 여행자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2017년부터 격년으로 수행하는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에서 여행객에게는 가 본 여행지에 대해, 현지인에게는 잘 알거나 살아본 지역에 대해 여가/관광 자원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2021년 4~5월 컨슈머인사이트가 보유한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들로 여행객 3만3,485명과 현지인 3만6,127명 등 총 6만9,612명의 여행지-여가/관광 자원 추천 데이터를 분석했다.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 할당했고 자료수집에는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컨슈머인사이트 '2021년 여행자·현지인 국내여행지 평가/추천 조사' 조사개요

- 해당 데이터는 전국 여행자와 현지인(연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의 여가/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평가함
-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정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산업 관계자에게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 및 분석됨

 모집단	• 전국 20세 이상 성인
 표본 추출	• 컨슈머인사이트 온라인 세베이 패널(IBP) 82만명 * IBP (Invitation Based Panel)란,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난 후에 모집된 패널로 자기선택(Self-selection) 오류를 차단함
 수집 방법	• Online/Mobile -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수집 기간	• 2021년 4월 30일 ~ 2021년 5월 26일 (총 27일) 본 조사는 2017년 시작되었으며 격년(bi-annual)으로 시행
 표본 추출 방법	• (1단계) 성 x 연령 및 거주지에 따라 인구 비례 할당 • (2단계) 표본추출 틀 내에서 무작위 확률적 추출
 표본 규모	• 총 6만 9,612명 - 여행객 : 3만 3,485명 - 현지인(연고자) : 3만 6,127명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김지윤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kimjy@consumerinsight.kr

02)6004-7610